

SERMON 20 AUGUST 2017

누군가와 우연히 마주치는 것이 인생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루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미소를 짓는 것과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여는 대화를 하는 것처럼 단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빛을 발하고 그것을 더 탐구하기를 원하는 무언가 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텔레비전에서 경계를 흔드는 것과 그 경계들이 너무 팽팽하게 설정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충격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편할지도 모르지만, 만약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화를 내거나, 혹은 슬프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좋고 생명체가 생존하는 것에 반대 하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혐오스러운 말들이 대중 매체를 폄하하는 미끄러운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간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은 공공 장소에서 서로를 폄하하고 어디에서도 존경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학대 행위가 대낮에 비취 지고 있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배경에 반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복지에는 큰 문제가 있고,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소망에 반하여 동성애자 결혼에 대한 투표를 요청 받고 있으며, 그 결과 양측 모두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희망이 위태로운 것을 느끼고, 사회의 좋은 질서가 위협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대해 경청했습니까? 오늘날의 시끄러운 대중의 소음에 대한 이 모든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안전 지대로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하고 출입구를 봉쇄하고 싶어 하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제한 하고 막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특정한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독교 신앙이 다른 관점을 가진 시각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편을 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얼마나 슬픈 일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야기되어야만 하는지 단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종종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특대형 인간으로 만든다면 말입니다.

비록 여분의 성경구절로 새겨져 있긴 했지만, 저는 마태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듣는 것을 고의로 확대 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와 제자들은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문화적인 의식이 명백한 위생적인 중요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위해 앉아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이 항상 우리에게 "손 씻었니?"라고 묻는 것이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청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이 깨끗하고 불결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삶을 영위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부정했습니다. 외국 여성들은 특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그곳에는 얼마나 많은 불결함이 존재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나요. 이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급진적인 이야기였고, 바리새인 들에게 사랑 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얼마나 화나게 하는지 알 수 있는지 물어보면 제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를 멸망시키는 일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마태는 우리를 두로와 시돈으로 데려 가서, 이방 영토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가나인으로 묘사된 여인과 만난 그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남에서도 많은 이유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와 마태의 공동체 둘 다 유대인이 아닌 멤버들에 대한 긴장감을 다루고 있고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방인인 우리가 처음부터 소유하고 있는 기독교의 긴 이야기의 일부분인 우리를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만 아니지만 그때 당시 그들에게 불편함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서양인들이 아닌 다른 문화적 표현을 신봉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포용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서 우리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듭니다.

이 구절에서 더 큰 불편함은 예수님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는 "개"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그녀를 모욕하는 듯한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개"는 외국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유대인의 묘사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성실함과 진실성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혜의 소유자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여기서 이 점을 잘못 짚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열리는 것 대신에 편협한 견해를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집요한 딸을 향한 사랑과 보살핌에 직면했을 때, 그녀가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듣고는 예수님은 그녀를 주시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의 음식을 개에게 던지는 것은 불공평하다" 라고 말했을 때 긴장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빠른 대답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지 빵 부스러기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고 반응하는 것은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여인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었고, 무엇이 정확한 가르침이고 배워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신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녀는 그녀의 마음에 예수님은 그녀의 딸을 위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생각과 마음을 바꿨고, 보이지 않는 딸을 즉시 치료했습니다.

백부장의 치료와 같은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이야기는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포함한 어떤 장벽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거나 아니면 옳지 않은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너무나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우리와 함께 앉을까요? 누가 남긴 부스러기들을 가지 나요, 우리가 그것들을 쓸까요 아니면 쓰레기 통에 넣을까요? 많은 우리의 땅에 얼마나 많은 낭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거나 변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편안한 지역으로 후퇴하고 싶어 하는 또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사람들을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돌보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개방적이고 관대한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사랑을 통해 심장과 마음을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역동적이고, 정적이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음악의 가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 월에 클라이브와 저는 시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 된 골목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수 세기 동안 사람들이 골목길을 지나가는 것을 상상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큰 광장과 짧은 골목길을 지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과 만났다고 말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단지 저에게 그 장소를 예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의 의미를 부여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지금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아주 오래 된 건물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노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 입니다. 행복한 소리입니다. 그것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센터였습니다. 밖에는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이 있었지만 그 표지의 중앙에 있는 이미지는 총에 빨간 색 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명예를 손상시키고 더럽힙니다.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말과 행동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이해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를 새로운 성장과 풍요로움과 성장으로 이끌어 냅니다. 목요일 날 저에게 놀랄 만한 우연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워싱턴 DC 에서 살고 있는 PBS 뉴스 아워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백인 우월 주의자들이 행진했을 때 샬롯츠빌에서의 폭력에 대한 충격적인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둘러싼 많은 코멘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검은 색과 흰색 그리고 많은 경제적인 불리함 사이에 큰 격차가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찰스톤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아프리카 공동체의 지도자이자 백인 우월 주의자 커뮤니티의 리더가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희망의 표시가 되었다. 그들은 그들이 정반대의 입장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또한 폭력이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공동체가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초로 계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매각하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은 분열되지 않고 함께 모이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누구나 함께 걷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식탁 위에 있는 음식들을 나눌 수 있고, 모든 것이 영양분을 찾을 수 있고 부스러기를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